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⑰ 보문 선사의 구도 수행 5



▶한줄요약
보문은 한암, 경봉 등 선지식들과 수없이 질문과 답을 주고 받았다.

많은 선지식들과 선문답 법거량

12. 한암 생신날의 질문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제자를 비롯한 타인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데에는 깊은 뜻이 깃들어 있을 테다. 보문의 구도수행과 중생제도를 알려주는 전문과 기록에도 중요한 질문이 깃들어 있어 진지하게 읽힌다.

견성 인가 전후로 보문이 선지식을 향해 던진 질문이 많았겠는데 몇 사례만 전해진다. 먼저 한암의 생신을 맞이해 국수대중공양을 할 때 보문이 질문한 경우다. 말석에 앉아있던 보문이 한암 앞으로 나가서 절을 올리고 여쭙는다.

"오늘, 스님이 태어나셨는데, 어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법거량에 가깝다. 부모미생전(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본래면목이라는 화두의 답을 물은 것이이라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불가의 상식에 어긋난다. 시간과 생일이 연결되는 〈벽암록〉 제6칙 〈운문십오일(雲門十五日)〉을 이와 연결하여 사유해 볼만하다.

운문(雲門)이 물었다.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않겠거니와 15일 이후를 한마디 일러보라"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운문이 스스로 대신해서 말했다. "나날이 생일날[日日是好日]"

시간은 물과 같이 흘러 틈이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나눌 수도 없다. 공간은 물론 시간도 공(空)하기 때문이다. 순간순간만 있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죽고 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내가 태어나는 '나의 생일'이 된다. 보문이 이런 통찰에 근거하여 은사의 생일 전날 은사가 계신 곳을 물었을까? 한암은 이에 대해 어떤 답을 했을까? 혹은 침묵했을까?

13. 경봉 스님과의 법거량

보문은 경봉(鏡峰, 1892~1982)과도 두 번의 법거량을 했다. 한 번은 직접 만나서, 또 한 번은 편지를 통해서다. 그 선후가 애매하지만 직접 만난 것이 먼저라 보는 것이 옳다. 편지 문구에 "작년 선문답에서 진 것을 다시 한 번 이겨볼 계획입니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선문답' 은 이런 것이다.

보문은 1938년(32세)에 사미계를 받고 이듬해인 1939년(33세)에 오대산 적멸보궁으로 가서 정진한다. 그 무렵 경봉이 방문했을 것이다. 경봉이 묻는다. "오대산 적멸보궁은 참배객마다 열고 닫는다하니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 보문이 답한다. "꽃 떨어지는 삼월 청산 속에 두견새 소리에 열고 닫기를 맡깁니다" 혹은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관계없는 일이고,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습니다" 혹은 "숲 속의 뱁새에게 묻지 말고 홀로 한가히 우는 꾀꼬리에게 물어 보세요" 이에 대해 경봉은 "왕대밭에 왕대 났네"라고 평했다.

선지식이 선문답을 통해 수행자를 이끌어줄 때 파주(把住)와 방행(放行) 두 방법을 쓴다. 파주가 수행자의 경지를 부정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어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면, 방행은 격려하고 이끌어서 수행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어하여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한다. 보문을 '왕대' 로 지칭하고 한암 문중을 '왕대나무 밭' 으로 칭찬한 데서 경봉의 방행 의도를 짐작한다.

한암 생일날 "어젠 어디 계셨나?"
경봉과도 두 차례 선문답 법거량
선원 운영 이견으로 상원사 떠나



보문은 원융살림 등 선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했지만 이루지 못하자 상원사를 떠났다. 사진은 상원사 옛 모습.

반면 보문은 자기 답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패배를 인정한다. 보문이 자기 답변을 부정적으로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경봉의 방행에 대해서 당당한 파주로 대꾸하지 못한 것이 걸렸을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숲속 뻐꾸기나 두견새에게 적멸보궁 열쇠를 맡긴다는 보문의 답변은 기발하다. 뻐꾸기나 두견새의 '소리' 에게 맡겼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뻐꾸기 소리나 두견새 소리는 '사람의 손' 을 비롯하여 그것이 아닌 것을 떠올려 비교하고 배제한다. '한가히 우는 꾀꼬리' 는 '숲 속의 뱁새' 를 떠올려 압도하고 배제한다. 분별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봉이 던진 분별 언어의 그물에 보문이 걸려든 것으로 보인다.

14. 바르게 올라타고 그만두어야

그 뒤 경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문은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경봉이 순서를 바꾸어 답했으니 보문의 두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옛글에, 올라타려면 바로 올라타고 그만두려면 바로 그만두라고 했으니 이것은 승가의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올라타지 않고 그만두지도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가의 일상 다반사' 라고 표현한 것은 '올라타려면 바로 올라타고 그만두려면 바로 그만두라.' 는 구절이 〈벽암록〉 제68칙, 〈선문염송〉 제497칙, 〈대혜보각선사어록〉 등 선어록이나 선사의 법문에 두루 등장하기 때문이다. 보문은 그것을 제쳐버리고는 "올라타지 않고 그만두지도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경봉은 이 질문 자체를 문제 삼고 되묻는다. 질문에 깃든 질문자의 분별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더 꼼꼼히 따져보고 질문을 다시 하게 한다. 경봉은 또한 스스로 질문을 수정하여 되묻는다. 질문을 할 때는 질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질문하기 전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리석은 개는 돌을 던지면 돌을 물지만 영리한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의 손을 문다."라는 승가의 비유도 그런 취지다. 질문이 언어에 의해 왜곡되기 이전, 질문의 출발점 이전에 착안하는 것이다.

'올라타려면 바로 올라타고 그만두려면 바로 그만두는 것' 을 '승가의 일상 다반사' 라며 제쳐버린 보문의 태도를 경봉은 '어름한' , 분명하지 못한 것이라 꾸짖는다. 그래서 어름하게 얼버무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살핀 뒤 명료한 질문을 만들라고 했다. 그리고 경봉은 보문의 재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대신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보낸다. 즉, '올라타려면 바로 올라탄다고 했는데 당나귀를 타는가? 말을 타는가? 그만두면 바로 그만두라 했는데 서서 그만두는가? 앉아서 그만두는가? 누워서 그만두는가? 또 올라타고 그만두는 곳은 어디이며, 올라타고 그만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보문에게 질문한다. 올라타고 내리는 대상, 방식, 장소, 그리고 주체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데 경봉의 이 재질문 역시 선어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선문염송 염송설화〉(혜심, 각운 편저) 제497칙의 구절들이다.

'나귀를 타는가? 말을 타는가?' 란 질문은 이류중행(異類中行)을 선언한 남전(南泉)의 사연과 연결된다. 〈선문염송〉에서 장사(長沙, ?~868)는 남전이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는 물음에, "동쪽 집의 나귀가 되고 서쪽 집의 말이 되었다"라고 대답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묻는 질문에 "올라타려면 바로 올라타고 내리려면 바로 내려라"고 대답한다. 바로 이 국면에서 보문이 완전히 다른 질문으로 나가버렸다면, 경봉은 이 국면을 발판으로 삼아 그것을 확장하고 발전시킨 셈이다.

〈선문염송〉 제497칙에 등장하는 선승들은 수행자들이 남전의 길을 따르라고 권고한다. 가령 무진(無盡)은 "말 익히는 선객들아 정진 잘하여/ 다른 날에 남전을 계승하라."는 송(頌)을 지어 삼계를 벗어나고자 수행하던 수행자들을 절망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온갖 추측과 알음알이가 난무한다. 낭야각(瑯琊覺)은 "타려면 타고/ 내리려면 내려라/ 경쇠 소리 그친 뒤엔/ 값을 바꾸지 못하니"라고 하여 우물쭈물하거나 알음알이로 계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지만 알음알이는 끝없이 작동된다. 남전이 동쪽 집의 나귀가 되고 서쪽 집의 말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알음알이로 재느라 분답하기 이를 데 없다. 그것은 올라타고 내리는 대상, 방식, 장소, 그리고 주체에 대한 알음알이로, 경봉이 재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것들은 식정(識情, 妄識)의 소산이다. 그런 점에서 경봉의 재질문은 보문을 옭아매기 위해 던진 그물이고 파주(把住)이다. 보문이 그 질문에 이끌려 식정을 일으켜서 이런저런 알음알이에 헤매었을까? 아니면 '올라타야 할 때 바로 올라타거나' '내려야 할 때 바로 내려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을까? 이는 보문 자신의 살림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됐을 터인데, 그 다음 편지는 없다.

보문이 적멸보궁과 관련하여 던진 첫째 질문은 이러하다. "소승이 명색이 적멸보궁의 시향(侍香, 선원서 선지식 보좌하는 소임)입니다만, 무엇이 적멸보궁입니까? 또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히 오셔서 개시(開示, 가르쳐 인도함, 열어 보여줌)해 주시는 뜻으로 시를 지어 보여주소서" 이에 대해 경봉은 "현로(玄路, 보문의 출가 법명) 상인(上人)이 있는 곳에 문(門)은 몇 개가 있으며 열쇠는 어디에 두었는지 자기가 있는 집일이야 모를 리가 없으니 이것도 잘 일러 보기를 바라네" 역시 질문의 출발점에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 밖과 남에게서 찾지 말고 안의 자기에게서 찾으라는 조언으로 귀결되었다.

15. 상원사를 떠나는 보문

보문은 선원의 입승으로 수행을 이어갔지만, 당시 우리나라 선원을 대표하던 상원사 선원이 한암 권속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한암은 제방 선객들이 따르는 조실이니 더욱 그랬다. 대중살림을 공개하고 대소사를 대중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원융(圓融)살림을 하자고 한암에게 직언한다. 전각 용도도 바꾸려 했다. 법당 옆 한쪽 방을 일반 선객들이 공부를 하는 곳으로, 건너편의 방은 누구든 24시간 정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런 보문의 선원 개혁론을 한암이 기꺼이 받아들였고 다음날 아침에 공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엿들은 시자가 그 사실을 탄허에게 고했다. 보문의 선원 개혁 시도가 한암 권속들에게는 절 운영 주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쳤다. 탄허가 한암을 뵙고 선원 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침이 되어도 한암이 선원 개혁 발표를 하지 않자 보문은 머뭇거림 없이 상원사를 떠나갔다. 올라타야 할 때 바로 올라탔고 내려야 할 때 바로 내린 것이다. 1945년 보문이 39살 때이다. 보문이 떠나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간경, 참선, 염불, 의식, 포교 등 승가오칙을 만들어 그것들을 두루 추구하는 한암 가풍은 오롯이 참선 수행만을 추구했던 보문과는 맞지 않았다.

〈연세대 객원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인재양성과 복지의 전법도량
나주 덕룡산 미륵사


미륵전 전경

회주 백봉 원일
주지 덕룡

● 학교법인벽상학원 세지중학교
● 사회복지법인 백양실버타운

대한불교조계종18교구 미륵사
전남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 408-64
전화 061)331-3436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말사
봉덕사

주지 현오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안길 21 전화 062)674-2888